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 2009년도~2011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임정완
대구대학교

Lim, Jeongwan. (2011). An analysis of the national level qualifying tests for English teacher candidates of secondary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202-2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national level qualifying tests for English teacher candidates of secondary schools. It analyzes the 120 test items from 2009 to 2011 in terms of the test question types and percentages of different fields of major and suggests some ideas to make the tests more efficient in serving its purpose. The question types of the tests are identified as 5 kinds of types, which are a best answer selection type, a sentence completion type, a negative question type, a correct answer selection type, and all the correct answers selection type.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s of questions are all the correct answers selection type and a best answer selection type. The tests consist of the five major parts, which are listening, and general English reading, English education, English linguistics including syntax, phonetics, morphology, pragmatics, and cultural knowledge about English as well as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Although the tests are made up with the major parts, the number of questions and their sub-domains varies each yea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urther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future stud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national level qualifying tests for English teacher candidates of secondary schools /Teacher education/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교사교육]

I. 서론

2000년에 들어서서 세계적인 경기의 불황과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이 선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가장 손꼽히는 안전한 직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사가 되는 길은 전국의 32개에 해당되는 국, 사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을

* 이 논문은 2008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졸업하거나, 일반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하는 방법을 취해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자격증은 단지 교원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시행된 교사 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 시험제도를 통과해야만 국공립학교의 영어교사가 될 수 있다. 지난 2011년도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은 경쟁률은 전국 15개 시, 도 교육청의 총 467명 모집에 10,192명이 지원하여 21.82대 1(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년 10월 집계)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서울시 교육청이 38.27대 1로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그 다음이 대구 교육청으로 27.75대 1, 부산 교육청이 25.90대 1로서 세 번째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충북 교육청도 14.25대 1로서 영어교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

1991년도부터 시작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은 그 문항의 출제 방식이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고, 2008년도까지는 1차 시험에서 단답형 주관식 및 객관식 혼용과 2차 시험에서는 수업시연 및 영어 면접 형태였던 것이 2009년도부터 1차와 2차 그리고 3차로 바뀌었고, 새로이 바뀐 1차 시험은 듣기 문항이 추가되고, 전면 선택형 5지 선다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단답형 주관식 문제 유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2차 영어논술 시험이 추가되면서, 표현 중심의 영어 작문 기술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도입되었고, 3차의 시험도 수업시연과 면접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심층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도부터 이러한 1차 시험 출제 형식이 획기적으로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지난 3년 동안 출제된 임용시험 문제의 신뢰성과 타당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 유형이 도입되면서, 문항 자체가 안고 있는 객관식 유형의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바뀐 1차 임용시험의 기출 문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 문항의 발문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출제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임용시험은 전공영어 부문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 영역은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제유형의 변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정리한 배두분 (2002)의 시기별 분류 용어를 빌려 표 1과 같이 문제의 출제 경향을 기준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즉, 교원 임용시험이 최초로 생겨난 1991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생성기로서 4지 선다형 문제로 전공영어 70점 만점에 각 문항 당 1점씩 70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두 번째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전개기로서 객관식 문제에서 서술형 답안이 도입되어 문제 형식이 바뀐 시기로서 전공영어의 문제당 배점을 1에서 6점으로 달리하여 전체 문항 수를 17개~25개 내외로 대폭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정립기로서 영어교원 임용시험이 서울교육청과 그 밖의 전국교육청이 분리되어 별도로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을 나누어서 출제하는 시기이다. 2004년도부터는 인천교육청이 서울교육청과 합류하여 별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 문항 수가 16개~25개로서 각 문항은 1~9점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배점이 이루어졌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에서 출제한 임용시험은 9점에 해당되는 영어 논술형 문제가 포함된 단답형 서술형과 객관식이 혼재하는 문항의 유형이 출제되었다. 네 번째로 2009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는 개혁기로서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독립해서 출제하던 문제유형은 전국영어 임용시험과 합산되어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유형이 시행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09년도부터 듣기 문항이 8문항으로서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추가 되었고, 전체 문항 수도 40문항으로 증가하였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는 생성기의 4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처럼 단순 암기식의 전공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실 현장에서 응용하는 측면까지 다루고 있으며,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상, 중, 하 난이도에 따라 문항의 배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형의 변천

	생성기	전개기	정립기	개혁기
학년도	1991~1996	1997~2001	2002~2008	2009~2011
문제 유형	4지선다형(전국)	서술형(전국)	단답 서술형 (서울, 인천/전국)	5지 선다형(전국)
문항수	70	17~25	16~25	40(듣기문제8문항포함)
만점	70	70	70~80	80
배점	각 1점	1~6점	각 1~9점	각 1.5~2.5점

2.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성격

2009년도 각 시·도 교육청 중등 교원 임용시험의 시험 시간 및 배점은 표 2와 같다. 제 1차 시험의 교육학(공통)의 출제 범위는 교육학 전 영역으로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 제12조 관련 별표3(2004.09.03)>의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을 중심으로 출제되면,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한다.

제 2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전공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되며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2004-5호(2004.06.09))>에 따른다. 교과교육학은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해당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제1차 시험에서는 30~35%, 제 2차 시험에서는 35~55%가 출제된다. 교과내용학은 영어학, 영미문학, 일반영어 등을 포함하며 제1차 시험에서는 65~70%, 제 2차 시험에서는 45~65%를 차지한다. 제3차 시험은 일반 교과를 기준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으로 이루어진다.

표 2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의 시험 시간 및 배점

전형별	시험과목	문항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분)	문항배점	총점	출제비율	
							교과교 육학(%)	교과내 용학(%)
1차 시험	교육학 (공통)	선택형 (5지 선다)	40	70	0.5	20		
	전공	선택형 (5지 선다)	40	120	1.5 2 2.5	80	30~35	65~70
2차 시험	전공	논술형1	2	120	20~30	50	35~55	45~65
		논술형2	2	120	20~30	50		
3차 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20		
	수업실연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3.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 선행 연구

임용고사의 문항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정상용(1999)이 임용고사의 문제점에 대해 필기 시험의 내용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그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출제 기준이나 평가 방식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교과교육학의 경우 특정 내용이 편중되거나

출제자에 따라 평가 내용과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통해 임용고사의 출제 내용과 출제 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윤재룡(2003)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영어 교원 임용사의 전국 유형의 기출 문항을 분석하여 현 중등 교원 임용고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문항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항적인 측면의 개선안으로는 중등 영어교원 임용고사의 출제 범위 및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임용고사에서 일반영어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어교육론, 영어학, 영미문학의 출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안으로 문항 출제에 좀 더 많은 현직교사가 참여하여 문항의 현장성을 살려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현정(2004)은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등 영어교원 임용고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정 영역에 편중된 출제 위원들의 구성과 의도에 따라 문제 구성 비율에 있어서 전공 각 영역별 출제 비율이 일관성과 균형을 잃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영어 전공의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따른 배점과 문항 수를 검토한 후, 배점 및 문항 수에 있어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길정(2004)은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04년도의 임용고사가 영어교사의 자질에 부합하는 문항인가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미시적, 거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원과 오지희(2007)는 2004부터 2006년도까지 3년도 서울과 인천 중등 임용고사와 전국유형의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세부 출제 영역에 있어 일관성의 부족과 지필고사 위주여서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 점, 그리고 많은 문항이 일반영어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영어 교사의 자격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김기수(2007)는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전국 시도 영어교원 임용고사 전공영어 문항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임용고사에 출제된 일반영어 문항이 모두 읽기와 쓰기 관련 문항이었고, 듣기와 말하기 관련 문항은 없고, 쓰기 문항도 제한된 쓰기 문항만 있었으므로 영어구사능력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일반영어와 전공 통합형 문항들은 영어 지문만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주로 독해력 평가 문항으로 볼 수 있고, 전공(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문항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고경석 등(2008)은 2009년 새로이 실시되는 객관식 임용시험에 대비하여 영어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을 개발하고 교사 자격 평가 영역의 설정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상세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2008)은 표시과목 영어과의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에 대하여 평가 영역을 유목화하여 정하고 각 영역에 대하여 평가 내용 요소를 2~5개로

상세화하였다. 또한, 행동 영역을 적절히 배정하고, 1, 2차 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비율을 평가 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상세화 지침에 따라서 마련하였다.

한편으로, 김정렬, 김영미(2009)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에 걸쳐 시행된 임용시험의 문항을 분석하고, 영어 교사 자격 기준에 합당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 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결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임용시험은 세부영역의 출제 비율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결론을 짓고, 최근 도입된 2009년도 객관식화 된 임용시험이 영역별 고른 분포를 제안하고 있어 합당하게 영어 교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타당한 시험으로 발전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한편, 2차 교원 임용시험인 영어 논술 시험에 대한 분석은 전영주(2009, 2010)의 연구에서 2009학년도 영어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 논술 시험 도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논술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술 시험에서 가장 유용했던 과목은 영어교수법으로 조사되었고, 시험에 대비하여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은 영어 작문으로서, 체계적인 영어 쓰기 지도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논술 지도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최종 관문인 3차 면접과 수업실연 평가에 대한 분석 연구로는 이종복, 전영주(2009)의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2009년도부터 5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시험 문제의 출제 형식이 새로이 바뀌게 된 교원 임용시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1차 시험의 전공영어 문항 분석 연구를 한 논문은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지난 3년간의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개혁기에 해당하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시행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1차 전형 120 문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보다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 1차 전형과 2차, 그리고 3차 전형의 모든 영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2차와 3차 전형에서 실시되는 논술, 면접, 수업능력 평가 등의 영역은 분석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차 전형의 필기 시험 문항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임용시험의 출제 세부 영역에서 영어교육 부분은 별도로 2009년도 이전의 기출 문제와 비교를 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1차 전형 문항은 교과구분(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내용 요소, 문제 유형, 문항 당 배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전체 문항 중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했다.

2004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어과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9개로서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학, 영미문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성원, 오지희(2007), 김정렬, 김영미(2009)의 선행 연구의 문항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크게 5가지 영역, 즉 듣기, 일반영어(읽기),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는 다시 세부영역으로 영어교육학은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언어 기능 및 ICT 활용지도의 5가지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영어학은 음운 및 어형론, 구문 및 의미론, 담화 및 화용론, 영어문법과 영어 응용음성학 등 6가지 세부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영문학은 영미시, 영미소설, 영미희곡, 영미문화 등 4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요소간의 상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년도별 시험 문항에 일관성이 있는가, 문제 유형과 문항 당 배점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문항 발문 유형과 난이도와의 상관성이 있는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문항 발문 유형 분석

2009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객관식 교원 1차 임용시험 문항 유형은 5가지의 발문 형태인 최선답형, 정답형, 합답형, 부정형, 그리고 완성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최선답형은 5지 선다 답안 중에서 가장 최선의 답안을 고르는 문항으로 다음의 2009년도 11번 문항과 같다.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

- ① The History of Acupuncture
- ② The Flow of Energy in the Body
- ③ Acupuncture and Modern Medicine
- ④ The Proper Use of the Acupuncture Needle
- ⑤ The Healing Process of Acupuncture

두 번째, 정답형으로서 5지 선다 답안 중에서 올바른 답안을 고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도 1번 문항이 이와 같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dialogue?

- ① The last time the woman talked with the man, he was in good condition.
- ② The woman presently has no problems with her health.
- ③ The man does not trust complementary therapy.
- ④ The man thinks complementary therapy is good for headaches.
- ⑤ The man thinks complementary therapy helps heal the patient quickly

세 번째, 합답형은 올바른 진술에 대항되는 보기 항목을 모두 고르게 하는 문항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 22번 문항이 해당된다.

Choose all the correct statements about <A> from the list in .

- ① a, b, d ② a, b, c, d ③ a, c, d, e
- ④ b, c, d ⑤ b, c, e

2011년도에는 발문이 조금 바뀌어서, all 뒤에 only를 덧붙여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골랐어도, 틀린 항목을 고른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게끔 하는 안전 장치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30번 문항은 다음과 같이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Based on <A>, choose all and only the sentences in that are structurally ambiguous.

- ① a, b ② a, b, f ③ a, c
- ④ c, d, e ⑤ c, d, f

네 번째, 부정형으로서 오지 선다형 답안들 중에서 올바르게 진술 되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는 문항 유형이다. 예를 들어, 2011년도 23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rrect statement about the activity?

- ① It winds down with work on specific language features.
- ② It restricts language use to predetermined language items.
- ③ It helps learners engage in completing tasks collaboratively.
- ④ It includes opportunities for planned production.
- ⑤ It integrates language skills across the two task cycles.

다섯 번째, 완성형으로서 진술문의 일부분(단어, 어구, 숫자, 기호 또는 문장)을 비워 놓고 정답으로 채우게 하는 문항 유형이다. 2010년도 13번 문항이 그 예가 된다.

Which of the following best completes the last sentence?

- ① Silva remains a last symbol of courage for the environment.
- ② Silva was a victim of the short-term vagaries of politics.
- ③ the Amazon's ecosystem was doomed to failure.
- ④ Silva is done fighting for the environment.
- ⑤ Silva fought against the supporters of the green movement.

이러한 5가지 유형의 문제 형식은 각 출제 영역별로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각 영역별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지를 살펴 본 결과, 2009년도에는 부정형 문항이 정답형 문항보다 많았으나, 점차 정답형 문항이 부정형 문항보다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완성형과 최선답형 문항은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합답형의 문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답형은 교육과 어학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2010년도 시험에서 어학분야는 총 8문항 전부가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당시 어학분야의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합답형으로만 출제가 된 발문 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답형 유형의 문항은 다른 유형 문항과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이다. 반면에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5지 선다형 문제로서 합답형이 가장 많은 지식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듣기와 일반영어, 문학영역에서는 합답형 문항이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듣기와 일반영어, 문학영역의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에 있어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한편, 완성형 유형은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그 특성 상 문항의 발문 형태는 골고루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편중되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다.

표 3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발문 유형 분석

학년도	영역	유형	정답형	부정형	완성형	최선답형	합답형	문항수	배점(%)
2009	듣기		3	2	1	2	0	8	16(20)
	읽기		1	0	2	2	0	5	10(12.5)
	교육		2	5	0	1	7	15	29.5(36.87)
	어학		0	1	1	0	5	7	14.5(18.12)
	문학		0	1	1	3	0	5	10(12.5)
	합계		6(15%)	9(22.5%)	5(12.5%)	8(20%)	12(30%)	40	80(100)

2 0 1 0	듣기	4	2	1	1	0	8	16(20)
	읽기	1	1	2	2	0	6	12(15)
	교육	6	2	0	1	5	14	27.5(34.37)
	어학	0	0	0	0	8	8	16(20)
	문학	0	2	2	0	0	4	8.5(10.62)
	합계	11(27.5%)	7(17.5%)	1(2.5%)	4(10%)	13(32.5%)	40	80(100)
2 0 1 1	듣기	3	3	1	1	0	8	16(20)
	읽기	2	0	0	4	0	6	12(15)
	교육	5	2	0	0	7	14	28(35)
	어학	1	1	0	1	4	7	14(17.5)
	문학	2	1	0	2	0	5	10(12.5)
	합계	13(32.5%)	7(17.5%)	1(2.5%)	8(20%)	11(27.5%)	40	80(100)

2. 출제 영역별 분석

2009년도에 객관식으로 바뀐 중등 영어교원 임용 시험은 교과교육학은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해당교과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제1차 시험에서는 30~35%, 제 2차 시험에서는 35~55%가 출제된다. 교과내용학은 영어학, 영미문학, 일반영어 등을 포함하며 제1차 시험에서는 65~70%, 제 2차 시험에서는 45~65%를 차지한다. 각 영역 별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듣기 문항

2009년도부터 새로이 추가된 듣기 문항은 총 40 문항 중 8문항으로 16점(20%)으로 배점되었고, 기본이수 과목 및 분야에서는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에 해당되고, 평가영역으로는 “영어듣기”에 해당된다. 지난 3년간의 임용시험에서는 각각 8문제씩 일관되게 출제되어 왔으며 각 문항 당 듣기 지문이 평균 230단어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대화체 형식의 문항은 평균 12개의 대화 순서(turn)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듣기 문항은 난이도 면에 있어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2010년도 듣기 문항은 수능시험의 듣기 문항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어 2011년도에는 듣기 문항의 속도가 2010년도에 비해 더 빠르게 조정되었다.

듣기 문항은 수험자들이 대부분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변별도 측면에서도 그리 높은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듣기 문항은 중 두 문항은 너무 쉬워서 대다수가 정답을 맞추어 변별력이 없었으며, 2010년도의 듣기 문항 중 한 문항은 너무 어려워서 대다수가 오답을 골라 변별력이 없었다.

2) 일반영어 독해 문항

임용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영어의 유형은 뚜렷한 범위나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영어 독해의 지문은 2009년도에 10점(12.5%), 2010년도에 12점(15%), 2011년도에 12점(15%)로 출제되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육학과 영어 관련 지문을 제외하고는 전공지식과는 상관없는 지문 형태가 대부분 출제 되었다. 인문분야 즉 교육, 심리, 언어 등의 영역이 절반 정도 출제되었고, 나머지 분야가 생물, 환경, 의학, 동물 등에 관한 것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과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인문 관련한 내용을 많이 읽게 되므로, 임용시험에서도 인문 쪽의 지문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에서 골고루 영어 지문을 출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3년간의 기출 문제에서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일반영어 독해 지문 주제별 분석

연도		2009		2010		2011	
순서	문항	주제	문항	주제	문항	주제	
1	9	인문(영어)	9	인문(영어)	9	심리	
2	10	사회학	10	과학	10	사회학	
3	11	과학	11	생물	11	심리, 생리학	
4	12	동물	12	교육학	12	의학	
5	13	환경	13	미술	13	생물	
6			14	심리학	14	인문(언어)	
배점(%)		10(12.5)		12(15)		12(15)	

전체 어휘 수의 측면에서 보면 2010년도 임용시험은 2009년도 보다 일반영어의 읽기 지문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어휘 수도 많이 늘어났고 (2009년도 어휘 수 8,233개, 2010년도 어휘 수 8,323개, 2011년도 어휘 수 8,443개), 그로 인해 2009년도 보다 합격선이 4점 정도 더 내려갔다. 그의 영향으로 2011년도는 난이도 면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다.

3) 영어교육 문항

영어교육 부문은 세부 영역을 5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즉,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언어 기능 및 어휘, 문법, ICT활용 지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생성기와 전개기에 해당되는 1992년과 2001년도 사이에는 주로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과 교수법 위주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짙었고, 정립기인 2002년도에 들어서는 언어 기능 및 ICT 활용의 문항들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단편적인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문항들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여 주듯이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세부 영역의 기준에 맞게 각 영역별로 골고루 다양하게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언어 기능 관련한 세부적인 교실 활동에 관련한 문항, 즉 교실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가를 묻는 문항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나뉘어 표 안의 번호는 출제문항 수와 배점(괄호 안의 숫자)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ICT 활용지도 부문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고, 2011년도에는 쓰기 교육 관련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부 영역별 출제는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에는 영어 논술이 2차에 이미 평가되므로, 1차 임용시험에서는 쓰기 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표 5
영어교육 분야 세부 영역 분석

시 기	영 역 연 도	어 득 및 학 이 론	교 과 및 교 재 론	평 가	교 수 법	언어 기능 및 ICT 활용 지도					문 항 수 (전 체 문 항 수)	배 점 (%)	
						듣 기	말 하 기	읽 기 와 어 휘	쓰 기	문 법			I C T 활 용
생 성 기	92	4(4)		2(2)	7(6)							13 (70)	13 (18.5)
	94	7(7)			3(3)	3 (3)		1 (1)				14 (70)	14 (20)

전 개 기	97	3 (13)		1(4)	1(4)					5 (20)	21 (30)	
	98	1(7)	1(5)	1(5)	1(4)				1 (5)	5 (15)	26 (37.1)	
	99	1(7)	1(6)		2(6)					3	19 (27.1)	
	99 추가	6(6)		3(4)	4(4)	1(1)	4 (4)	1 (2)	1 (2)	20 (47)	23 (32.8)	
	00	2(8)			1(4)	1(2)	1 (4)	1 (3)		6 (19)	21(30)	
	01	4 (16)			1(4)		1 (7)			6 (20)	27 (38.5)	
정 립 기	02 서울	1(4)	1(5)	1(3)	1(4)	1(5)		2 (7)	1 (5)	8 (17)	33 (47.1)	
	02 전국	1(3)		1(4)	1(5)	1(4)	1 (4)	1 (4)	1 (4)	7 (19)	28 (40)	
	03 서울	1(4)		1(4)			2 (8)	2 (9)	1 (6)	7 (16)	31 (44)	
	03 전국	2(6)			2(7)	1(2)	1 (4)	1 (2)		7 (19)	21 (30)	
	04 서울 인천				2(9)		1 (5)		1 (4)	4 (16)	18 (25.7)	
	04 전국	1(4)			2(7)			1 (3)	1 (3)	5 (20)	17 (24.2)	
	05 서울 인천	2(4)		1(2)	2(5)			2 (4)	1 (3)	8 (28)	18 (22.5)	
	05 전국	1(3)		3(9)	2(7)			1 (4)	1 (3)	8 (25)	26 (32.5)	
	06 서울 인천	1(3)		1(3)	3(9)			2 (7)	1 (4)	1 (4)	9 (23)	30 (37.5)
	06 전국	2(5)	2(5)	1(2)	3 (13)				1 (3)	1 (4)	10 (24)	32 (40)
	07 서울 인천	1(4)		1(4)	1(4)		1 (4)	1 (3)	1 (4)	1 (3)	7 (21)	26 (32.5)
	07 전국	2(7)	1(4)	1(3)	2(6)			1 (4)	1 (3)	2 (6)	10 (24)	33 (41.2)
	08 서울 인천	1(3)	1(4)	1(4)		1(4)			1 (3)	1 (3)	6 (21)	21 (26.2)
	08 전국	3 (11)		1(3)		1(4)	1 (3)	2 (7)	1 (4)	9 (22)	32 (40)	

개 혁 기	09	4 (8.5)	1 (2)	1 (2)	1 (1.5)	1 (2)	1 (25)	3 (55)	1 (2)	1 (1.5)	1 (2)	15 (40)	29.5 (36.8)
	10	1 (15)	3 (5.5)	2 (4)	3 (6.5)	1 (2)	1 (2)	1 (2)	1 (2)	1 (2)	0	14 (40)	27.5 (34.3)
	11	3 (65)	2 (4)	1 (2)	2 (4)	1 (2.5)	1 (15)	2 (35)	0	1 (2)	1 (2)	14 (40)	28 (35)
합	배점 (%)	1455 (236)	40.5 (6.5)	68 (11)	123 (20)	285 (463)	52 (84)	53 (86)	54 (55)	215 (34)	52 (84)	220	615

4) 영어학 문항

지난 3년간 영어학 문항은 20% 안팎의 수준으로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세부 영역에서 담화와 화용지도는 지난 2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제자에 의존하여 시험문제가 출제되다 보니, 해당 세부 영역의 전공자가 출제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되지 않는 사례를 보여 준다. 표 6은 영어학 분야 세부 영역 분석을 요약 정리하여 보여 준다. 연도별로 나누어 표 안의 번호는 실제 문항의 번호를 의미한다.

표 6
영어학 분야 세부 영역 분석

연도	음운 및 어형지도	구문과 의미 지도	담화와 화용지도	영문법 지도	음성학 지도	문항수	배점
2009	0	27, 29, 33	35	32	31, 34	7	14.5(18.12%)
2010	33	31, 32, 34, 35, 36	0	28	30	8	16(20%)
2011	26, 33	30, 32	0	31, 34	35	7	14(17.5%)

영어교육 영역의 문제 유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영어학 문항은 아직도 단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음성학 영역에서 2007년도의 기출 문제와 2011년도의 기출문제는 5지 선다형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음에도 문제의 출제 형태나 묻는 내용은 기존과 유사하여, 단순지식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등 영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사가 접목하고 응용할 지를 묻는 문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9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음운 및 어형지도가 출제되지 않았고, 2010년도와 2011년도 임용시험에서는 담화와 화용지도 영역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반면에 구문과 의미지도 관련한 문항은 2010년도에 5문제나 출제되어, 해마다 출제 세부 영역의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난이도 면에 있어서 2010년도의 임용시험은 합격 점수가 2009년도에 비해 월등히 낮아졌고, 특히

통사론 부분의 문항들이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이 보는 원서에서 출제되어 학부를 졸업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 수 없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변별력과 난이도 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문항이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임용시험의 어학 부문이 너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대폭적으로 영어학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고, 2010년도에 영어학 부문의 어려움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은 2011년도에 너무 쉬운 영어학 문제를 보고, 예상치 못한 쉬운 난이도에 오히려 허무해하는 경우(Brown, 2000)도 발생하였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고 시험 준비를 할 때에 수월할 것이다. 이전 년도의 난이도가 다음 연도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로 된다.

5) 영문학 문항

영문학 문항은 세부영역을 영미시, 영미소설 또는 수필, 영미희곡, 영미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7은 지난 3년간 임용시험의 영문학 문항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표 7

영문학 분야 세부 영역 분석

연도	영미시	영미소설, 수필	영미희곡	영미문화	문항수	배점
2009	37	38, 39	40	36	5	10(12.5%)
2010	38	39, 40	0	37	4	8.5(10.62%)
2011	39	37, 40	38	36	5	10(12.5%)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각각 5문항씩 배점 10점(12.5%)으로 출제된 반면에, 2010년도에는 4문항으로 8.5점(10.62%)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2010년도에 영어학 분야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영문학 문항이 한 문항 더 줄어든 경우에 해당된다. 영문학 문항은 2009년도 이전에는 일반영어와 통합되는 듯한 인상이 짙고, 영미희곡 분야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도에 들어서서 영문학 분야의 세부 영역을 각각 반영하여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영역별로 각각 문제가 출제되는 양상이다. 한편,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영미문화 관련 문항은 지필고사인 까닭으로 문화의 폭 넓은 이해를 측정하기 보다는 영어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의 문제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김기수, 2007; 이성원, 오지희, 2007)과 현실적으로 문화의 이해를 문항화 하기에 어려운 애로점이 있는데, 좀

더 일반영어의 독해 수준 문항 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는 문항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새로이 시행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임용시험의 전공영어 문항 분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구체적인 시험 문항의 발문 형태와 세부 영역별 분석 연구가 드물었기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의 문항을 연도별, 발문 유형별, 세부 내용 영역별로 경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의 발문 유형은 크게 5가지, 최선답형, 정답형, 합답형, 부정형, 그리고 완성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주로 합답형과 정답형의 발문 문항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어 교육과 영어학 영역에서는 합답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듣기 부문에서는 정답형과 부정형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읽기 영역에서는 오히려 완성형과 최선답형으로 출제 되었다. 영문학 부문에서는 합답형 문항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최선답형과 부정형과 완성형이 사용되었다. 합답형 유형이 많이 사용된 2010년도 시험에는 확연히 난이도가 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어학 분야는 합답형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출제자가 선호하는 발문 형태가 확연하게 나뉘는 현상으로서 향후 임용시험에서는 영역별로 정형화된 발문 형식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문항을 발문하는 형태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객관식 문항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선택형 답지에서 오는 힌트를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을 좀 더 복잡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영어 교사 자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용시험의 내용 영역별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영어교육 부문이 35% 이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듣기 영역으로 20%가 출제 되고 있으며, 영어학이 18~20%로 출제되었고, 영문학과 일반영어가 10%~15%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9년도 이전의 임용시험에서 출제자에 따라 세부 영역별 문항 수나 문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김진완 등(2003)의 임용고사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경석 등(2008)의 개정된 3단계 임용시험의 시안 개발 연구 결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된 5지 선다형 1차 임용시험 문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영역의 출제 비율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 영역에서는 해마다 문항의 수와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어학 분야에서는 담화와 화용지도에 관한 문항은 지난 2년간 출제 되지 않았고, 음운 및 어형지도, 의미회곡과

컴퓨터활용 영어교육도 각각 한번씩 출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에 구문과 의미지도는 2010년도에 5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게 되며,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학습자들이 더욱 집중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 시험의 역류현상(Brown, 2000, 2001, 2004)이 더욱 성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현재 제한된 문항 영역에서 한정된 문항 출제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대신 문제 해결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문제의 답을 유추하도록 하는 것은 시험의 목적을 상실하고 우수한 예비 교사를 변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항 수를 증가하여 좀 더 신뢰도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5지 선다형 문항의 한계점으로 전공지식의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 할 수 없기에 주로 함답형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다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혼합하는 고사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 영어교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영어능력과 교사로서 전문 지식함양을 둘 다 갖추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도 이전의 임용시험 문항들은 일반영어 독해 능력을 전공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서 문제의 소지가 되었다. 영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1차 지필고사인 객관식 5지 선다형에서는 오히려 영어 독해 실력이 없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더욱 더 어렵게 되었다. 즉 합격의 당락이 전공지식보다는 영어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영어교사는 당연히 영어실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전공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 임용시험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영어교사로서 전공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를 깊이 있게 평가하고, 영어 능력의 유창성은 부가적으로 영어공인인증시험 등을 통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제안하고 싶다.

본 연구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난 3년간 실시된 중등 영어교원 1차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2차와 3차 시험 문항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폭 넓은 연구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다 후속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연구를 위해 출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한 문항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후속 연구를 위해 학술적인 연구에 국한하여 실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경석, 김진완, 이성원, 최성희, 윤현숙, 조정순 등. (2008). *중등학교 영어과 교사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평가도구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한국영어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 (2004a). *교직과목의 이수과목과 학점.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제 12조 관련 별표 3*.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4b).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 학과) 및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수. (2007). 중등 영어교사 임용고사의 출제문항 내용 분석. *영어영문학 연구*, 49(3), 65-86.
- 김정렬, 김영미.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 연구: 2006~2009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0(1), 155-175.
- 김진완, 신명수, 어도선, 이소영, 이현우, 황종배. (2003). *교원 임용시험 표준화 방안: 중등영어과 임용시험*. 연구자료 KRF-2003-030- B00091. 충북: 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 윤재룡. (2003). *중등 영어 교원 임용 고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항분석과 경향의 흐름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이성원, 오지희. (2007). 영어 교원 고사 문항 출제 경향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4(1), 215-242.
- 이종복, 전영주.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 3차 수업실연과 면접 시험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신영어영문학*, 44(11), 239-266.
- 전영주.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2차 영어 논술 시험 분석 및 지도 방안. *영어영문학연구*, 35(4), 157-183.
- 전영주. (2010). 예비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영어교과교육*, 9(3), 35-57.
- 정길정. (2004).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영어교과교육*, 3(2), 33-55.
- 정상용. (1999). *중등 교원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수원.
- 정현정. (2004). *중등영어 임용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중등학교 영어과 교사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평가도구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출문제. 월드와이드웹: http://www.kice.re.kr/ko/board/list.do?menuid=10150&board_id=10161에서 2010년

11월 15일 검색했음.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임정완

대구대학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 850-4125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31 December 2010

Revised 5 February 2011

Accepted 11 February 2011